

〈잔등〉의 귀환 서사적 특성 연구

김병구*

1. 들어가는 말
2. 만주 이주 조선인 운명의 간접적 서사화
3. 타자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공감
4. 귀환 불가능한 고국 상실자 운명의 역설
5. 맺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허준의 〈잔등〉이 고국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의 불가능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고국 상실자의 역설적 운명을 보여준 귀환 서사라는 문제의식에 서서 이를 서술자 ‘나’의 귀환 여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논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잔등〉은 일본 제국의 붕괴가 초래한 역사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만주를 탈출하여 고국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던 피난민의 운명과 만주 이주 조선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집단 기억을, 고국 상실 상태의 피난민인 ‘나’의 기억을 매개로 소환된 ‘사촌매부’ 일족의 불행한 삶의 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둘째, 〈잔등〉은 해방된 조선에서 타자화될 수밖에 없는 잔류 일본인의 운명과 타자화된 피난민인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나’를 내면을 통해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가능성을 환기해 주고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셋째, 고국에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공동체의 외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나'의 내면의 고독을 표상하는 '제삼자의 정신'은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의 타자가 되는 것,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즉 향수 속에서 상상된 고국에 있는 듯한 안정된 상황으로 귀환할 수 없다는 '나'의 절망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자의 배제를 통해 민족의 서사를 구축하려는 가혹한 혁명의 현실이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저항적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귀환 서사, 고국 상실자, 피난민, 타자화, 공감, 고독, 향수, 민족 공동체)

1. 들어가는 말

1936년 『조광』에 〈탁류〉를 발표하며 등단한 허준은 지식인의 자의식에 국한되었던 “심리 묘사를 인간관계 일반으로 환원시켜 심도 있게 포착”¹⁾하고, 인간의 근원적 조건인 ‘고독’을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 독자적인 소설 ‘미학적 현대성’을 구현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잔등〉²⁾은 그의 소설들 가운데서도 ‘미학적 현대성과 모더니즘 경향의 정수’³⁾를 보여 준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해방 직후에 창작된 “문학이 거둔 성과의 정상에 이르는 작품의 하나”⁴⁾로 〈잔

1) 김윤식·정호용, 『현대소설사』, 예하, 1993, 252쪽.

2) 〈잔등〉은 1946년 1월 잡지 『대조』 창간호부터 2회에 걸쳐 연재되다가 그해 9월 을유문화사에서 출간한 단행본 『잔등』(1946.9)에 수록되었다. 이하에서 인용한 부분은 이 단행본을 출처로 하되 현대 국어 표기 원칙에 따라 수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3) 권성우, 「허준 소설의 ‘미학적 현대성’ 연구」, 『한국학보』 제19권 4호, 일지사, 1993, 46쪽.

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39쪽.

등)이 거론되는 까닭도 〈잔등〉이 거둔 미학적 성취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설사적 평가에 걸맞게 〈잔등〉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잔등〉이 서술자 ‘나’가 해방 직후 만주에서 조선으로의 귀환 여정을 문제화한 1인칭 소설이라는 기술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기존 연구는 대략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귀환 여정이라는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내적 형식으로서의 ‘길’에 주목하여 〈잔등〉의 시공간적 의미를 밝히고 이 연장선상에서 그 서술 형식의 특징을 규명한 논의들⁵⁾, 둘째, 해방 직후의 미디어 담론 상에서 주요 화두가 되었던 만주 이주 조선인의 귀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맥락에서 귀환 서사로서의 〈잔등〉이 지닌 특징과 의의를 다른 귀환 서사들과의 대비를 통하여 부각하고자 한 논의들⁶⁾, 셋째, 서술자 ‘나’가 지닌 피난민 의식에 초점을 맞춰 귀환 여정에서 ‘나’가 조선의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겪게 되는 내적 갈등 및 그로 인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작가가 〈잔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이념적 비전의 특징을 규명한 논의들⁷⁾ 등이 그것들이다.

5) 이와 관련한 논의들로, 김윤식, 「許浚論: 소설의 내적 형식으로서의 ‘길’」, 『한국 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8; 이병순, 「허준의 「잔등」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노용무, 「해방기 문학의 내적 형식과 길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6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이영미, 「『잔등』의 서사 미학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김현정, 「〈잔등〉의 서술 전략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제7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등을 들 수 있다.

6) 이와 관련한 논의들로,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비교문학』 제40호, 한국비교문학학회, 2006;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할」, 『사이間SAI』, 제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등을 들 수 있다.

7) 이와 관련한 논의들로, 김종욱, 「식민지 체험과 식민주의 의식의 극복: 허준의 〈잔등〉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신형기, 「허준과 윤리의 문

이상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잔등>은 이념 내용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적 서사 구조 및 서술 형식 측면에서도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잔등>의 서사 분석을 토대로 작가의 이념적 비전을 규명한 논의들은 ‘고국 상실’⁸⁾의 관점에서 <잔등>을 다시 읽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특히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잔등>에 함축된 식민주의 의식 및 식민지적 무의식을 분석하고 식민주의 의식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 김종욱의 논의, 윤리성과 정치성의 대립 구도 속에서 <잔등>의 서사를 분석하여 작가의 허무주의적 비전을 문제 삼은 구재진의 논의, <잔등>에 나타난 소비에트에 대한 인식이 함의한 바를 밝힌 이양숙의 논의, 국외자의 관점에서 ‘민족의 도덕’이 갖는 한계를 드러낸 서사로서 <잔등>의 의의를 규명한 신형기의 논의, 서술자 ‘나’의 이념적 주제화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잔등>이 민족의 도덕을 넘어서 국제 연대의 보편적 대의를 제시하고 있음을 밝힌 서경석의 논의 등은, ‘고국 상실’의 관점에서 <잔등>이 만주 이주 조선인들의 귀환 문제를 어떻게 서사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근본적으로 인식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는 주요 연구 성과들이다.

<잔등>이 발표 당시 동시대의 비평가들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품에서 ‘흥분’, ‘희열’, ‘감격’의 정서를 느낄 수 없어 해방의 현실이 부여한 민족 서사 구축이라는 과제를 충족시키지 못하

제: 「잔등」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7호, 상허학회, 2006; 구재진, 「허준의 「잔등」에 나타난 두 개의 불빛과 허무주의」, 『민족문화사연구』 제37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8; 이양숙, 「허준의 <잔등>에 나타난 소비에트 인식과 정치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호, 한국현대문학회, 2013; 서경석, 「이념 선택과 궁핍한 주체로의 길-허준의 <잔등>론」,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77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등을 들 수 있다.

8)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망명’ 또는 ‘망명자’로 번역되는 영어 exile을 친숙감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국 상실’, ‘고국상실자’ 등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동시대 비평가들의 냉담한 반응에 대하여 작가 허준은 단행본 『잔등』의 발문에 해당하는 〈소서〉에서 “민족적 생리를 문학적으로 감득하는 방도”를 반드시 “그들과 같은 방향에 서서 조망”⁹⁾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¹⁰⁾ 〈잔등〉 서사의 이념적 비전을 밝힌 논의들은 공히 이와 같은 작가 허준의 입장을 전제로 타자의 윤리학에 기초하여 민족의 서사를 넘어서는 보편적 대의의 이념을 선취한 작품으로 〈잔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 논의는 〈잔등〉을 ‘고국 상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고국 상실’의 관점에서 문제의 대상으로 삼는 ‘고국 상실’의 경험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논의를 참조하면, 민족주의 관념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고국 상실’의 관점은 민족주의와 고국 상실을 마치 헤겔이 말한 주인과 노예 비유와 같이 변증법적으로 얽혀 서로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대립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잔등〉에 함축된 바, 탈민족주의적 이념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입각점이 될 수 있다.¹¹⁾

그러나 〈잔등〉을 민족의 서사를 넘어서는 보편적 대의를 선취한 작품으로 파악하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는 〈잔등〉의 서술자 ‘나’가 귀환의 여정의 끝에 역설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 즉 고국에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서사 내적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게 도출하고 있지는 못하다. ‘나’의 귀환 불가능성에 대한 깨달음은

9) 허준, 『잔등』, 을유문화사, 1946, 1쪽.

10) 〈잔등〉을 둘러싼 당대의 비평적 논의의 전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김현정의 「〈잔등〉의 서술 전략 연구」(295-305쪽)에서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11) Edward W. Said,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Essay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pp.176-177.

피난민으로서 고국 상실을 경험한 주체가 자신이 나고 자란 장소 사이에서 느끼는 치유할 수 없는 균열 및 그로 인한 근원적인 슬픔에서 비롯한다. 그리하여 고국 상실을 경험한 자는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의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음을 ‘고국 상실’의 비평적 관점은 제공해 준다.¹²⁾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국 상실’의 관점에서 <잔등>이 고국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고국 상실을 경험한 ‘나’의 귀환 여정의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2. 만주 이주 조선인 운명의 간접적 서사화

<잔등>은 화가로 짐작되는 서술자 ‘나’(=천복)가 동료 ‘방’과 함께 해방을 맞아 ‘만주국’의 수도였던 ‘장춘’을 출발해 ‘회령’과 ‘수성’, 그리고 ‘청진’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귀환의 여정을 문제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총 25일에 걸친 ‘나’의 여정 중 작품에서 현재화되고 있는 부분은 회령에서 수성을 거쳐 도착한 청진을 떠나기까지의 나흘간이다. ‘나’가 ‘방’과 함께 서울을 향해 청진을 떠나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되고 있어 그 뒤 그들의 행적은 알 수 없다. 또한 장춘에서 회령에 이르는 여정도 “장춘서 회령까지 스무 하루를 두고 온 여정이었다.”는 한 문장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나’는 이 문장에 이어지는 서술을 통하여 ‘스무 하루’에 걸친 여정에 대한

12)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식인의 표상: 지식인이란 누구인가』, 최유준 옮김, 도서출판 마티, 2012, 66쪽.

소회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잔등〉의 서사적 기획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로를 막을 아무런 장비도 없는 무개화차 속에서 아무렇게나 내어 췌겨친 오토기 모양으로 가로 서기도 하고 모로 서기도 하고 혹은 팔을 끼고 엉거주춤 주저앉아서 서로 얼굴을 비비대고 졸다가는 매연(煤煙)에 전 남의 얼굴에다 거언 침을 지르르 흘려주기질과 차에 오를 때마다 떼밀고 잡아채고 곤두박질을 하면서 오는 짝패이다가도 하루아침에 홀연히 오는 별리(別離)의 맛을 보지 않고는 한로(寒露)와 탄진(炭塵) 속에 건너 매어진 마음의 닷줄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알고 살기 힘든 듯하였다.¹³⁾

‘스무 하루를 두고 온’ 장춘에서 회령에 이르는 여정에 대해 술회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나’는 두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우로를 막을 아무런 장비 없이’ ‘한로’와 ‘탄진’ 속에 이루어진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험난한 여정에서 ‘짝패’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홀연히 오는 별리’를 경험함으로써 부지불식간 그들과 ‘마음의 닷줄’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나’의 술회에는 “예전 중국 땅이던 것을 일본이 빼앗아가지고 제맘대로” 세운 만주국의 수도 ‘신경’이 현재는 “맨 처음 가지고 나왔던 이름대로 장춘”¹⁴⁾이 된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나’의 인식이 개재되어 있다. 즉 일본 제국의 붕괴로 말미암아 만주 지역과 인접한 조선의 국경 도시 회령으로 넘어오는 게 쉽지 않다는 ‘나’의 현실 인식을 함축한 것이다. 회령에 밤늦게 도착한 탓에 ‘나’와 ‘방’이 신세를 지게 된 집의 안주인이 ‘목단강’에서 농사를 짓던 시동생도 ‘이날 밤’ 무사히 건너왔다며 기쁨을 드러내

13) 허준, 앞의 책, 2쪽.

14) 위의 책, 38쪽.

고 있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나’가 새삼 깨닫게 된 ‘마음의 닳줄’이란 국경을 함께 넘어온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비유한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거 고국을 떠나 만주 지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나’의 공감을 함축한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잔등>의 서사적 기획은 근원적으로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만주 지역 이주민의 운명을 서술하려는 데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술자 ‘나’가 “한 개 피난로 상에 있는” ‘피난민’으로 스스로를 의식할 뿐 아니라 귀환의 여정에서 “한 방향의 차를 기다릴 스무날 동안 낮 익히 보아 온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놓인 피난민으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잔등>에서 ‘나’는 그들과 ‘마음의 닳줄’로 이어져 있는 피난민이라는 의식의 동질성을 환기하고 있을 뿐, 자신을 포함하여 그들이 어떤 연유로 만주로 이주해야 했고, 피난민의 처지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잔등>은 상징적인 사물 ‘륙색(=륙크)’의 반복적 언급 통해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피난민의 운명을 우회적으로 환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주집’으로 표상되는 ‘사촌매부’ 일족의 ‘불행한 운명’의 서사를 통해 식민지 시기 만주로 이주해 간 조선인들의 집단 기억을 효과적으로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자신이 나고 자란 땅에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즉 고국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민’, ‘난민’, ‘추방자’, ‘실향민’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¹⁵⁾ 그러나 이런 개념적 분류와 상관없이,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자들은 여행 가방을 풀지 못하는 딜레마를 공유한다. 그런 점에서 여행 가방은

15) Edward W. Said, 위의 책, pp.180-181.

이들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자들의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그것은 희망에서부터 근심 및 노골적인 공포에 이르기까지, 고국 상실 상태 놓인 사람들의 삶의 궤적, 열망, 운명 등을 표상하는 사물인 것이다.¹⁶⁾ 장춘에서 시작된 여정에서 ‘나’는 여행 가방(suit cas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룩색’의 반복적인 언급을 통해 자신이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피난민의 처지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나는 위선 집을 내려서 룩색 안에 든 물건을 꺼내어 모래 위에 아무렇게
나 내던지었다.

남색 중국 홉의(單衣) 위 아래.

어떤 구상 중의 그림을 위한 사생첩 두 권.

천복(千僕)이라는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동(同) 일기 한 권.

꼭 십일 년 전 두 번째 동경 갈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이불의 거죽과
홀청.

홀청 속에 싸 넣은 구두. 더러는 짹짹이 된 양말들.

그리고는 신문지에 둘둘 말아 남이 보기 전에 빨려고 하는 사루마다. 아
또 잊어서는 아니 되는 내 ‘귀중품’ 보료. 함경도 말로 탄자라는 것이다.¹⁷⁾

‘나’가 회령에서 뜻하지 않게 ‘방’과 헤어져 홀로 청진을 향하던 도중 내리게 된 수성의 강가 모래사장에 풀어 놓은 ‘룩색’ 안 물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대목이다. 초라하고 단출하기 짝이 없지만, ‘룩색’ 속 이 사물들 각각은 서사 전체의 맥락에서 피난민으로서의 ‘나’의 삶의 궤적과 내면의 상태를

16) Sharif Gemie and Scott Soo, “On Displacement: Narratives of Home, Conflict and Return in Twentieth-Century Europe”, Sharif Gemie, Scott Soo & Norry LaPorte(Eds), *Coming Home?* Vol. 1,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3, pp.1-4.

17) 허준, 앞의 책, 18쪽.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나’는 “양복저고리와 바지에다 넥타이까지 맨 채 끄르지 않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귀환을 ‘금의환향’이 아닌 ‘사루마다 환향’에 빗대고 있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륙색’ 안의 초라한 옷가지들은 공포와 긴장을 자아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나’가 급박하게 귀환의 여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불의 거죽과 흘청’은 일본 제국의 수도 ‘동경’에 간 경험과 ‘어머니’를 환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대비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상해 준다. 특히 ‘귀중품’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보료’는 자신의 여정에서 ‘한풍과 우로를 가리고 한숨을 막아’ 주었고 그런 만큼 ‘서울’에 가서 다시 책상을 놓고 앉아 보고 싶다고 언급하고 있는 맥락에서 ‘나의 귀환 궤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환기해 주는 물건이다. 이런 점에서 ‘나’가 수반한 ‘륙색’은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피난민’으로서의 ‘나’의 삶과 운명을 간접적으로 환기해 주는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잔등>에는 또 다른 여행 가방 ‘만주집’을 통해 고국 상실 상태에 있는 자들의 삶과 운명을 표상하고 있다. ‘나’의 회상을 매개로 서술되고 있는 ‘사촌매부’ 일족의 ‘불행한 운명’의 서사는 ‘만주집’으로 표상되고 있는데, 그것은 ‘륙색’이 갖는 개인적 차원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만주국’ 수립 이전부터 만주로 이주해 간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투’의 집단 기억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너 만주서 이런 물 봤니.”

“못 봤어요.”¹⁸⁾

...(중략)...

18) 위의 책, 18쪽.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제 날마다 하는 일이 금시에 생각하는 듯이 두
조마귀를 붙끈 쥐고 오들오들 떨던 그 조카 놈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라면,

“너 만주서 저런 하늘 봤니?”

“못 봤어요.”

하는 문답을 하면서 토닥거리고 오는 것이겠는가.¹⁹⁾

앞의 인용문은 수성의 강가 모래사장에 ‘륙색’을 풀어놓고 누운 ‘나’에게
‘불현듯’ 찾아온 기억 속 대화 장면이다. ‘나’는 ‘길림 이래 단속적으로 동행’
했던 어린 간호부와 ‘목릉’에서 탄 어린 소학생이 나눈 문답 형식의 이 대화
를 두고 ‘시의 대화’라 일컫고 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살 만한 자리란 자리
는 다 빼앗기고 발 들여놓을 흙 붙은 데도 없어서, 고국을 떠나 산도 없고
물도 안 보이는 광량한 회색 벌판에 서서, 발을 깔고 눈을 일으키고 혹은
미천한 직업을 찾아서 헤매이는”²⁰⁾ 만주 이주 조선인들의 고국을 향한 ‘간
절한 그리움’, ‘향수가 배어 있음을 느꼈기에 그렇게 칭한 것이다. 두 번째
의 인용문은 이 ‘두 어린 사람’이 주고받은 ‘시적 대화’에서 촉발된 연상 장
면으로 ‘사촌매부’ 일족의 ‘어린 조카’를 데리고 함께 귀환을 한다면 그와
나누었을 법한 대화를 상상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촌매부’ 일족을 만주에
남겨두고 자신만 귀환길에 오른 데 대한 ‘나의 뉘우치는 마음’, 즉 죄의식
이 투영되어 있다.

이 두 인용문 사이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 ‘만주짐’을 싸서 고국을 떠나
‘유리의 길’ 끝에 오년 전 만주의 척박한 땅 ‘북안’으로까지 밀려나 살아가
고 있는 ‘사촌매부’의 일족의 ‘불행한 운명’의 서사이다. ‘나’의 회상에 따르
면, ‘사촌 매부’ 일족은 1925년 무렵인 이십 년 전 ‘공주령’ 인근에 ‘만주짐’

19) 위의 책, 24쪽.

20) 위의 책, 19쪽.

을 풀고 ‘굴강하고 바르고 과감한’ 의지로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안정된 삶의 터전을 닦았지만, 그로부터 십오 년 뒤 “일본 심단 개척에게 전지를 빼앗기고 살던 데를 앓”김으로써 “촌 전체의 운명의 일부를 나누어 지고”²¹⁾ 다시 ‘유리의 길’을 떠나 지금의 ‘북안’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촌 매부’ 일족의 서사는 ‘만주국’ 수립 이전부터 식민지 조선을 떠나 만주 전역으로 이주해 갔던 조선인들이 겪었던 ‘고투’의 집단 기억을 환기해 준다. 더욱이 <잔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피난민’이란 말이 일본 제국이 붕괴된 뒤 국경을 넘나드는 고국 상실의 트라우마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표상하는 의미로 담론화되었던 해방 직후의 맥락을 고려할 때,²²⁾ ‘사촌매부’ 일족의 서사는 만주 이주 조선인들이 피난민이 되어 귀환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에 놓이게 된 근본 원인을 짐작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제국의 만주 개척 명분에 밀려 애써 일군 땅을 “만척에 강제 수용” 당하고 만주의 낯선 타지로 다시 이주해야 했던 고국 상실 조선인들이 처한 모순적 상황이 ‘사촌매부’ 일족의 ‘불행한 운명’의 서사 속에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932년 ‘만주국’ 수립 이전부터 조선인들의 만주 지역 이주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러시아와 청나라 제국의 쇠퇴, 그리고 일본 제국의 부상이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 관계 변화로 인해 만주 지역에 권력의 공백 상태가 초래된 결과 국경을 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였다. 더욱이 ‘만주국’이 수립된 이후 ‘내선일체’ 정책에

21) 위의 책, 20쪽.

22) Michael Kim, “The Lost Memories of Empire and the Korean Return from Manchuria, 1945-19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Dec 30, 2010 23(2), p.195.

따라 식민지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가 가속화된 결과 해방 직전에는 200만이 넘는 조선인들이 만주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 일본 제국이 붕괴되자 만주 이주 조선인들은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식민지 시기 이주한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의 구성원이었고, 또 그 이전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 어느 쪽에도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국적 미등록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오족협화(五族協和)’의 이념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위계에 따른 차별 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만주국’에서 조선인은 ‘제이의 일본인’으로 간주되었고 그로 인해 폭력적 상황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²³⁾ 바로 ‘나’가 회상하는 ‘사촌 매부’ 일족의 ‘불행한 운명’의 서사는 만주 이주 조선인들이 직면하였던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잔등〉은 일본 제국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초래한 역사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만주를 탈출하여 고국으로 귀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여야 했던 피난민의 운명과 고국 상실 상태의 만주 이주 조선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집단 기억을, 피난민 ‘나’의 기억을 매개로 소환된 ‘사촌매부’ 일족의 불행한 삶의 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 타자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공감

〈잔등〉은 서술자 ‘나’가 귀환 여정에 수반한 ‘륙색’을 통해 고국 상실 상

23) 위의 글, pp.216-220 참조.

태에 놓인 피난민의 운명을 환기하고 있다. 또한 ‘만주집’이 표상하는바, 과거 만주로 이주하여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조선인들의 집단 기억을 ‘사촌매부’ 일족의 ‘불행한 운명’의 서사를 매개로 환기해 주고 있다.

해방 직후 귀환 서사로서 <잔등>이 보인 특징은 비단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만주 이주 조선인의 운명을 문제화했다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만주 이주 조선인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나’의 공감의 해방된 조선에서 비참한 상황에 놓인 타자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되고 있는 점은 <잔등> 서사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것이다. 국경 도시 회령을 떠나 해방된 조선의 내부 청진을 향해 이동하면서 목도하게 된 ‘잔류 일본인’에 대하여 ‘나’가 보인 태도는 이를 확인해 주는 실마리가 되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엷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품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영계 통통 부어오른 낮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질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엷고, 달리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 서 있었다. …(중략)…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꾸부리어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한 개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을 활짝 펴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가리매,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들을 떨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중략)…“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세 어린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러며 고개를 개우뚱 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 보는 것이었다. 애걸이 없었다기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 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나. 그 위에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다. 고기잡이 아이를 갯가에서 내려오다 떨기우고 나서 제철소(製鐵所) 옆을 지나 혼자 걸어오다가 일본 사람들 때문에 만든 특별구역(特別區域) 가까이 와 다다랐을 때 그 아랫동네 우물에 몰켜들어, 방틀에 붙어 서서 주린 창자에 찬물을 몰아 넣고들 췌는 광경-한 사내는 더운 약 받아 들 듯 냉수 한 그릇을 손에 받아 들고 행길가 풀숲에 펼치고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한 모금씩 그이들은 목 너머 넘기고 있었다.²⁴⁾

인용문은 ‘나’가 회령에서 기차를 놓쳐 ‘방’과 헤어진 뒤 청진에서 그를 다시 만나 서울로 갈 수 있을 것이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홀로 청진을 향하던 중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에서 목격하게 된 일본인들의 ‘비참한 정경’을 서술한 대목이다. 굶주린 자식들에게 배를 사 줄 수 없어 실심한 ‘일본인 아낙네’의 모습, 일본인들을 분리 수용한 ‘특별구역’에서 ‘찬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 등을 보고 ‘나’는 이보다 ‘덜 비참할’ 정경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인용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장면이 ‘나’가 청진으로 향하던 중 목도한 것을 사후에 회상을 매개로 연상한 ‘짧막한 씬’을 서술한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청진에 도착하여 ‘방’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와 만나지 못하고 밤이 늦도록 청진역 인근을 배회하다가 불이 켜져 있는 국밥집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호기심에 밤이 늦도록 장사를 하는 연유를 국밥집 ‘노파’에게 묻는다. 이에 국밥집 노파가 자신의 사연을 말하던 중, ‘헐벗고 굶주린’ 채 자식들을 ‘업고 안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일본인 여성을 두고 한 노파의 ‘측은한 표현’을 듣고 ‘나’가 떠올린 것이 이 장면이다.

둘째는 국밥집 노파의 ‘측은한 표현’에서 촉발된 연상 장면이지만, 일본인 특별구역에서 굶주린 배를 물로 채우는 일본인의 정경은 노파의 ‘측은한 표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가된 연상이라는 점이다. ‘고기잡이 아이를 갯가에서 떨기우고 나서’란 서술이 암시하고 있듯이, 일본인 남성의 모습은 시간적 순서상 ‘일본인 아낙네’의 비참한 정경보다 앞서

24) 허준, 앞의 책, 82-83쪽.

목격한 것이다. 국밥집 ‘노파’를 만나기 전 ‘나’는 고기잡이 소년에게서 일본인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이미 전해 들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선 해방된 조선에서 타자화되어 비참한 삶을 영위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나’의 관심이 고기잡이 소년과 국밥집 노파 두 사람을 매개로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나’가 일본인에 대한 관심을 즉각적으로 보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낮에 고기잡이 소년에게서 일본인을 분리 수용한 특별구역이 있다는 사실, 일본인들이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자청해서 ‘아오지나 고무산’으로 간다는 사실 등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국밥집을 들르기 전 청진역 주변을 배회하면서 목격한 ‘삼삼오오 뭉치어 정거장 벽을 지고 묵묵히’ 서 있는 일군의 사람들이 아오지나 고무산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는 헐벗고 굶주린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저 ‘며칠 몇 달 못 먹은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지했을 따름이다. ‘나’가 그들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국밥집 ‘노파’의 ‘측은한 표현’이 담긴 사연을 듣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나’의 회상을 통해 제시되는 일본인의 비참한 정경을 역전적으로 배치한 것은 고기잡이 소년에게서 촉발된 일본인에 대한 ‘나’의 관심이 국밥집 노파를 매개로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공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서술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기잡이 소년과 국밥집 노파는 일본인에 대한 ‘나’의 관심을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등가적인 의미를 갖는다. 물론 고기잡이 소년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해방된 조선을 위해 수행되는 ‘혁명’의 이념적 표상 ‘김위원장’을 대리하여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미끼 삼아 특별구역을 탈출하는 일본인을 잡아들이는 임무에 ‘득의만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헐벗고 굶주린’ 일본인을 위해 국밥집을 여는 노파의 행위와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고기잡이 소년이 전체 일본인에게 땀

목적인 적대성을 드러내는 것만은 아니다.

그는 다시 처음의 흥분상태로 돌아가 낮에 얽은 분홍기를 떠르더니 다음 순간에 다시 푹 꺼져 들어가면서,

“내 뱀장어깨나 사먹은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던지 간에 숨켜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 정말 다아들 배가 고파서 짹짹합니다. 다아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망개를 비라리하러 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배추꼬랑이를 먹는다 고춧잎을 판다 수박껍데기를 팔는다, 그래 보다가 저영 할 수가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가지요.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갑니다.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텐데 일본것들이란 거지만 사내 없앤 것들만인 데다가 애 새끼들만 오글오글하는 걸 데리고 가기는 어딜 가며 어딜 가면 무얼 합니까.”

“.....”

“그 중에서도 외목 나쁜 것만 해온 놈들은 돈이 있어 도리어 뭘 사 먹기 들어가나 하지만 그렇게 아이 새끼들만이 많은 거야 업구, 지구, 걸리구 해서 당기는 게 말이 아니랍니다.²⁵⁾”

인용문은 고기잡이 소년이 ‘위원회 김 선생이 말하는 혁명의 대의에 따라 일본인을 잡아들이는 행위를 ‘흥분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인용에서 고기잡이 소년은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일본인들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즉 ‘뱀장어깨나 사먹’을 수 있는 ‘나쁜 것만 해온 놈’과 달리 남편을 잃고 ‘아이새끼들’을 ‘업구, 지구, 걸리구 해서’ 다니는 일본인 여인들의 처지가 ‘말이 아니’라는 발언은 그가 일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

25) 위의 책, 47-48쪽.

다. 더욱이 그의 발언은 일본인 아낙네를 두고 한 국밥집 노파의 ‘측은한 표현’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점에서 국밥집 노파와 고기잡이 소년 공히 일본인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한 ‘나’의 관심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인이 처한 비참한 상태에 대한 ‘나’의 관심이 공감으로 확대되려면 ‘나’에게 그럴 만한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 국밥집 노파의 ‘측은한 표현’을 듣고 일본인들이 처한 곤궁한 처지를 떠올리며 ‘비참할 수 없’는 ‘짧막한 씌’를 즉각적으로 떠올린 그 자체가 ‘나’에게 강렬한 내재적 동기가 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본래 공감(compassion)이란 말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집단의 감정, 즉 타자의 고통에 참여하는 동료 의식을 나타내는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²⁶⁾ ‘나’가 일본인에 대해 갖는 공감은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이 비참한 상태에 처한 그들에게 투영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가 “전쟁으로 인한 재화로 연결하여 생각함이 첩경인 특수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나’가 피난의 여정에서 입은 심적 외상, 그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내면화된 심리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가 회령에서 청진에 이르는 여정에서 전쟁의 흔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 준다. 가령 회령 역사 주변의 줄을 쳐놓은 곳을 ‘폭사’의 현장이라 상상하며 ‘한발이나 움츠려 들어가는’ 행동을 보이거나, 청진으로 가는 도중 목격한 ‘붉은 벽돌집’을 폭격의 흔적으로 의심하며 ‘가슴 한편 구석에 뭉키어 있’는 듯하다는 느낌을 갖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의 내면에 각인된 전쟁 트라우마의 증상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26) 下河辺美知子, 『歴史とトラウマ』, 作品社, 2000. 53-54쪽 참조.

27) 과거에 당한 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입은 심적 외상은 기억을 매개로 폭력적 사건을 당한 그 당시 마음과 신체로 느꼈던 감정, 감각 그대로 회귀한다. 오카 마리, 『기억·서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 볼 점은 고기잡이 소년이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삼지창으로 찌르자 보인 ‘나’의 반응이다. ‘나’는 삼지창에 찔려 꿈틀거리는 물고기를 보고 특별구역을 탈출하다 잡힌 일본인 부부의 비참한 운명을 연상하는데, 이는 피난의 여정에서 자신이 입은 내면의 고통이 일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 전이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나리 보따리 짐’을 지고 ‘호색 세루 치마에 고무신’을 신고서, 고기잡이 소년의 말마따나 ‘보지 않던 사람이야 알아낼 재간’이 없도록 조선인으로 변장을 하여 특별구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일본인 부부의 모습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안봉선’을 타기보다 에두르는 노선을 택한 것도 모자라서 ‘방’과 함께 중국인 복장으로 위장해 만주를 탈출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잔등〉은 해방된 조선에서 타자화될 수밖에 없는 일본인의 운명과 만주에서 타자화되어 귀환의 길에 오른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나’의 감정을 통해 타자가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을 환기해 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라 하겠다.

4. 귀환 불가능한 고국 상실자 운명의 역설

〈잔등〉에서 ‘나’가 ‘헐벗고 굶주린’ 일본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으로 고국 상실을 경험한 자로서 피난의 여정에서 겪은 내면의 상처가 내적인 계기로 작용한 결과였다. 해방된 조선에서 타자화된 삶을 영위하는 일본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나’의 정서적 공감은 다른 한편

사』, 김병구 역, 소명출판, 2004, 49-51쪽 참조. 이런 맥락에서 ‘나’가 전쟁의 흔적에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심적 외상이 드러난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으로 ‘위원회’의 ‘김 선생’, ‘자치회’, ‘보안대’ 등으로 표상되는 조선의 새로운 권력 집단이 수행하는 혁명의 가혹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을 한다. <잔등>은 이를 통해 타자의 배제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해방 직후 혁명 과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피난민도 형지 없이 어지러웠고 일본 사람들도 과연 눈을 거들떠보기 싫게 처참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생각하면 이것을 혁명이라 하는 것이었다. 혁명은 가혹한 것이었고, 또 가혹하여도 할 수 없을 것임에 불구하고 한 개의 배 장사를 에워싸고 지나쳐간 짙막한 정경을 통하여 지금 마주 앉아 그 면면한 심정을 토로하는 이 밥장사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떻게 된 배 한 알이며, 그것이 어떻게 된 밥 한 그릇이기에, 텃석텃석 국에 말아줄 마음의 준비가 언제부터 이처럼 되어 있었느냐는 것은 나의 새로이 발견한 크나큰 경이 아닐 수 없었다. 경이보다도 그것은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를 거쳐서만 거둬들일 수 있는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 같은 곳에 나를 연하여 주었다.²⁸⁾

인용문은 ‘헐벗고 굶주린’ 일본인들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밤이 늦도록 매일 국밥집을 여는 노파의 자선 행위에 대한 ‘나’의 소회를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나’는 국밥집 노파가 일본인들에게 베푸는 자선 행위에 대해 ‘새로이 발견한 크나큰 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과거 식민지 시기 남편과 많은 자식을 잃고, 노동운동에 투신한 마지막 아들마저도 해방 직전 옥사함으로써 일본인에 대한 원한이 쌓였을 법한데도 자신의 아들을 ‘가두어 죽인’ 일본인 ‘종자’에게 베푸는 노파의 자선 행위가 ‘나’에게 감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두고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를 거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숭고한 행위라고 말한 것

28) 위의 책, 89-90쪽.

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잔등〉에서 제시한 작가의 이념적 비전이 ‘민족의 도덕’을 넘어선 ‘보편적 대의’라고 평가하는 것은 국밥집 노파가 보여준 자선 행위에 대한 ‘나’의 감화에 근거를 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국밥집 노파의 자선 행위가, 비참한 상태에 놓인 동류의 고통을 혐오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의 발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대의’라고 평가되는 〈잔등〉의 이념적인 지평을 표상하는 인물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해방 전 식민지 조선에서 국밥집 노파의 아들에게 이념적 감화를 주어 그를 혁명의 길로 이끌었던 ‘가도오’라는 일본 청년이란 인물이 그이다. 그런 점에서 가도오는 〈잔등〉 서사의 이념적 지평을 한계짓는 지평 인물²⁹⁾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국밥집 노파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일본 사람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멸치만 잡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민족 간 경계를 초월하여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죄’로 국밥집 노파의 아들과 함께 투옥된 인물이다. 현재 그의 생사를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가도오의 신념과 행위를 ‘해득’한 결과 국밥집 노파는 민족 간 경계를 초월하여 ‘혈벗고 굶주린’ 일본인을 위해 자선 선행을 베풀었고, 바로 이러한 노파의 행위를 ‘나’는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도오가 표상하는 민족 간 경계를 초월한 보편적 대의라는 이념의 지평은 사실 〈잔등〉의 서사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나’에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나’는 국밥집 노인을 만나기 전 이미 ‘이십 여일’의 피난 여정

29) ‘지평인물’(horisom-figure)이란 프레드릭 제임슨에 따르면 서사에서 동경 및 욕망의 대상이 되는 이상적 인물이다. 그는 다른 인물들에게는 없는 이상적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평인물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대안적 세계를 시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레드릭 제임슨, 『정치적 무의식』, 이경덕·서강목 번역, 2015, 민음사, 216-7쪽 참조.

동안의 경험에서 체득한 ‘노인관(露人管)’을 피력한 바 있는데, ‘노서아’인들이 타자인 자신에게 보여준 ‘우의와 환대의 모습을 통해 가도오의 신념이 표상하는 것과 유사한 이념적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동경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청진의 밤거리에서 ‘소련에 국적을 둔 조선’ 여성처럼 보이는 여군이 민족을 달리하는 다른 여군과 ‘동성반려’하는 모습을 보고 촉발된 회상을 통하여 소련의 현실이 어떻게 상관없이 민족적 우의에 입각하여 ‘이민족’들과 서로 섞여 살아가는 ‘노서아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남과 같이 살아야 한다면 무난한 국민’이라는 ‘중대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비록 피난의 여정에서 경험한 러시아 군인들의 행동이 ‘충동적’, ‘발작적’이어서 위협으로 다가오기는 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화가라 하면 화가로 알고 환영’하는, 말하자면 타자화된 피난민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소박한 태도에서 ‘나’는 ‘마치 노서아 대예술가들의 주제를 시시각각으로 체험’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이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체득한 ‘나’의 ‘로인관’에는 민족적 우의에 바탕을 둔 보편적 대의를 향한 동경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에게 국밥집 노파의 숭고한 행위를 이념적 차원에서 매개하는 가도오의 신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밥집 노파의 자선 행위는 피난의 여정에서 타자일 수밖에 없었던 ‘나’가 동경해 왔던 보편적 인류애의 이념이 현실에서 현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밥집 노파의 자선 행위를 두고 ‘나’가 경이롭다고 한 것은 보편적 대의의 이념이 구현된 새로운 현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나’에게 해방된 조선에서 전개되는 ‘가혹한 혁명’의 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나’에게 역설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방된 조선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는 혁명이 타자의

배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 한, 가혹한 혁명의 현실에서 철저하게 타자화될 수 밖에 없는 일본인의 운명과 고국 상실의 경험으로 인해 타자화된 자신의 운명을 정서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나'가 가혹한 혁명의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혁명이 '가혹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나'의 인식은, 일본인 특별구역이 상징하듯, 민족적 타자 집단의 배제를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는 해방된 조선의 현실에 직면하여 고국 상실을 경험한 '나'의 자기 소외의 감정이 투영된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를 거쳐서만 가능한 국밥집 노파의 자선 행위에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 가능성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그 행위에서 '하염없이 너그러운 슬픔'을 느낀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토록 그리던 조선에 귀환했음에도 해방된 조선에 귀속될 수 없는 타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아래의 인용은 이를 시사해 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차꼬리에 감추어 보이지 아니하였던 정거장 구내의 임시사무소며 먼 시그널의 등들이 안계(眼界)에 들어오는 동시에, 또한 그지들의 거리(距離)마저 차차 멀리 떼어놓으며 우리들의 차가 그 긴 모퉁이를 굽어 돌을 따라 지금껏 염두에 두어보지도 아니하였던 그 할머니 장막의 외로운 등불이 내 눈앞에서 내 옷깃을 휘날리는 음산한 그믐밤 바람에 명멸(明滅)하였다. …(중략)… 그러고도 웬일인지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간절한 그리움들이 자꾸 가슴 깊이 남으려고만 하여서 나는 두 발뒤꿈치를 돌을 대로 돌우고 모자를 벗어 들고 서서 황량한 폐허 위, 오직 제 힘뽀를 빌어 퍼덕이는 한 점 그 먼 불 그늘을 향하여 한없이 한없이 내 손들을 내어저었다.³⁰⁾

30) 허준, 앞의 책, 103-104쪽.

인용문은 ‘나’가 ‘방’과 재회한 후 청진을 떠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명멸’하는 국밥집의 ‘잔등’을 향해 손짓으로 작별을 고하면서 <잔등>의 서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나’는 노파의 ‘장막’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황량한 폐허’로 인식하고 있다. ‘나’가 현실을 폐허로 인식한 것이 가혹한 혁명의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해방된 조선에 대한 ‘나’의 인식의 변화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수성 강가의 모래사장에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만주에 이주한 ‘사촌매부’ 일족의 ‘불행한 운명’을 떠올리면서,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향수’란 근본적인 것임을 환기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내 ‘조선이 그처럼 그리울 수가 없었던 나라’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움의 대상으로 상상했던 조선이 ‘황량한 폐허’로 ‘나’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상상 속에 그렸던 향수의 대상으로서의 고국이란 ‘나’에게 환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 따라서 고국 상실을 경험한 자신에게 귀환할 수 있는 고국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나’가 청진을 떠나면서 자신이 겪어온 ‘피난의 변천굴곡’이 청진에서 이미 완결되었음을, 그리하여 장춘에서 청진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었던 것 이상의 험로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무한히 넓고 먼 것처럼’ 느껴지는 ‘황량한 폐허’의 현실에서 ‘색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한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현실을 ‘황량한 폐허’로 바라보는 까닭을 자신의 내면에 고유한 본성으로 잠복해 있는 ‘구슬픈 제삼자 정신’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구슬픈’이란 수식어가 암시하듯, 이 ‘제삼자의 정신’이란 근원적으로 집단 외부에 놓인 고독, 집단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안주할 수 없음으로 인해 느끼는 고국 상실에 대한 ‘나’의 상실감을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즉 그것은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의 타자가 되는 것,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즉 향수 속에서 상상된 고국에 있는 듯한 안정된 상황으로 귀환할 수 없다는 ‘나’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잔등〉에서 여정 내내 한편으로 ‘나’의 내면의 상태를 환기하고 있는 ‘고독’, ‘독고감’은 영원한 고국 상실 상태에 놓인 자의 고고한 영혼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작가의 ‘허무주의’의 이념적 비전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역으로 그것은 타자의 배제를 통해 민족의 서사를 구축하려는 가혹한 혁명의 현실이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저항적 의미를 가진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결론

에드워드 사이드에 따르면, 고국 상실자는 남겨진 것에 대한 기억을 내면에 품고 있으며, 이를 현재의 경험과 대조한다. 그로 인해 고국 상실자는 끊임없는 상실감, 과거와 현재, 고국과 망명지 사이의 지속적인 균열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경험 내부와 경험들 사이의 모순, 즉 민족의 서사에 의거한 국가의 폭력과 개인적 고통의 깊이, 대규모의 이주와 고독한 영혼의 갈망 사이의 모순이 고국 상실자가 놓인 상태를 특징짓는다.³¹⁾ 본고는 고국 상실자가 놓인 근원적인 모순 상태에 주목하여 〈잔등〉에서 고국 상실자의 경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31) Edward W. Said, 위의 책, p.173.

첫째, <잔등>은 일본 제국의 붕괴가 초래한 역사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만주를 탈출하여 고국으로의 귀환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던 피난민의 운명과 만주 이주 조선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집단 기억을, 고국 상실 상태의 피난민으로서 귀환 여정에 있는 '나'의 기억을 매개로 소환되는 '사촌매부' 일족의 불행한 삶의 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둘째, <잔등>은 해방된 조선에서 타자화될 수밖에 없는 잔류 일본인의 운명과 타자화된 피난민으로서 귀환의 길에 오른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나'를 내면을 통해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가능성을 환기해 주고 있다.

셋째, 고국에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공동체의 외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나'의 내면의 고통을 표상하는 '제삼자의 정신'은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의 타자가 되는 것,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즉 향수 속에서 상상된 고국에 있는 듯한 안정된 상황으로 귀환할 수 없다는 '나'의 절망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자의 배제를 통해 민족의 서사를 구축하려는 가혹한 혁명의 현실이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저항적 의미를 가진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허준, 『잔등』, 을유문화사, 1946.

2. 논문과 단행본

구재진, 「허준의 「잔등」에 나타난 두 개의 불빛과 허무주의」, 『민족문화사연구』 제37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8, 321-348쪽.

권성우, 「허준 소설의 '미학적 현대성' 연구」, 『한국학보』 제19권 4호, 일지사, 1993, 30-51쪽.

김윤식, 『한국 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8.

김윤식·정호웅, 『현대소설사』, 예하, 1993.

김종욱, 「식민지 체험과 식민주의 의식의 극복: 허준의 〈잔등〉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185-202쪽.

김현정, 「〈잔등〉의 서술 전략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제7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289-339쪽.

노용무, 「해방기 문학의 내적 형식과 길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6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295-317쪽.

서경석, 「이념 선택과 궁핍한 주체로의 길-허준의 〈잔등〉론」,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77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135-153쪽.

신형기, 「허준과 윤리의 문제」, 『상허학보』 제17호, 상허학회, 2006, 171-200쪽.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식인의 표상: 지식인이란 누구인가』, 최유준 옮김, 2012.

오카 마리, 『기억·서사』, 김병구 역, 소명출판, 2004.

이병순, 「허준의 「잔등」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327-346쪽.

이양숙, 「허준의 〈잔등〉에 나타난 소비에트 인식과 정치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호, 한국현대문학회, 2013, 281-315쪽.

이영미, 「『잔등』의 서사 미학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246-272쪽.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間SAI』, 제2호, 국제
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161-193쪽.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비교문학』 제40호, 한국비교문
학회, 2006, 131-157쪽.

프레드릭 제임슨, 『정치적 무의식』, 이경덕·서강목 번역, 민음사, 2015.

下河辺美知子, 『歴史とトラウマ』, 作品社, 2000.

Edward W. Said,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Essays*, Harvard Uni., Press,
2004.

Sharif Gemie and Scott Soo, "On Displacement: Narratives of Home,
Conflict and Return in Twentieth-Century Europe", Sharif Gemie,
Scott Soo & Norry LaPorte(Eds), *Coming Home?* Vol. 1,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3, pp.1-14.

Michael Kim, "The Lost Memories of Empire and the Korean Return from
Manchuria, 1945-19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Dec 30, 2010
23(2), pp.195-223.

Abstract

A Study of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Return of the Novel *Jandeung*

Kim, Byeong-Gu(Sookmyung Women's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exile criticism',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at Heo Jun's novel *Jandeung*, as a return narrative, is a work that shows the paradoxical situation of exiles who cannot but realize the impossibility of returning to his homeland despite having returned to his homeland, through an analysis of the narrator's journey of return.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andeung* indirectly depicts the fate of the refugees who had to flee Manchuria and struggle to return to their homeland due to the change in historical circumstances brought about by the collapse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painful collective memory that the Korean migrants in Manchuria had to go through, through the unfortunate life narrative of the 'cousin and uncle' clan, which is recalled through the memory of the the narrator, 'I' on the return journey as a refugee in a state of homeland loss.

Secondly, *Jandeung* reminds us of the possibility of compassion for the suffering of others through the 'I' who identifies the fate of the residual Japanese, who are bound to be othered in a liberated Korea, with their own fate as othered refugees on the road to return.

Third, the 'spirit of the third party', which represents the inner loneliness of being placed outside of the national community despite returning to the homeland, reveals the 'I's' despairing awareness of being a third party in an eternally unstable state, and of no longer being able to return to the stable situation of being in the homeland imagined in nostalgia. However, it has a resistant meaning in that it reveals that the reality of the harsh revolution, which seeks to build a national narrative through the exclusion of the

172 대중서사연구 제29권 3호

other, is only an illusion.

**(Keywords: return narrative, exiles, refugees, others, compassion, loneliness,
nostalgia, national community)**

■ 논문투고일 : 2023년 9월 20일

■ 논문심사일 : 2023년 10월 6일

■ 수정완료일 : 2023년 10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0월 19일